



지은희 웨그먼스LPGA 우승

15번홀 극적인 역전 버디

LPGA 진출 2년만에 첫 쾌거

한희원·장정 공동 3위

'마키마우스' 지은희(22·필라코리아)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진출 2년만에 감격의 첫 우승을 따냈다.

지은희는 23일 뉴욕주 피츠퍼드 로커스트 힐필드골프장에서 열린 웨그먼스LPGA 최종 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6언더파 272타로 정상에 올랐다.

이븐파 71타에 그친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을 2타차 2위(14언더파 274타)로 밀어내는 짜릿한 역전 드라마를 펼친 지은희의 우승으로 올해 LPGA 투어 한국 선수 챔피언은 김트리뷰트 우승자 이선화(21·CJ)에 이어 두 명이 됐다. 우승상금 30만 달러를 받은 지은희는 상급랭킹 10위(47만 달러)로 올라섰고 앞으로 2년간 투어카드를 확보해 미국대중 정복에 나설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하나은행-코오롱퍼인십 때 페테르센에 1타 뒤진 채 최종 라운드가 취소돼 역전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준우승에 그쳤던 지은희는 8개월만에 성사된 최종 일 맞대결에서 깨끗하게 실욕한 후 "이번처럼 샷이 좋다면 앞으로도 여러차례 우승할 수 있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페테르센에 3타 뒤진 공동 2위로 동반 라운드를 펼친 지은희는 초반부터 폭발력을 몰아쳐 역전 드라마를 예고했다. 3라운드 때 행운의 이글을 선사했던 1번홀(파4) 버디에 이어 3번(파4), 4번홀(파5)에서 잇따라 버디를 뽑아낸 지은희는 제자리 걸음을 걷는 페테르센을 급세 따라잡았다.

하지만 지은희가 5번홀(파3)에서 보기를 적어낸 틈을 타 원기를 회복한 페테르센은 8번홀(파5)에서 버디를 뽑아내 2타차로 달아났다. 지은희의 12번홀(파4) 보기가 3타차까지 도망갔던 페테르센은 그러나 13번홀(파4)에서 달기가 잡혔다. 지은희가 10m 짜리 먼거리 버디 퍼트를 잡아넣어 기세를 올린 반면 티샷을 깊은 러프에 빠뜨린 데 이어 그린 옆 벙커를 거쳐 그린에 올라온 페테르



지은희가 23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피츠퍼드 로커스트 힐 필드골프장에서 열린 웨그먼스 LPGA 최종 라운드에서 감격의 첫 우승을 따낸 후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센은 보기를 적어내 순식간에 1타차로 좁혀졌다.

승부는 15번홀(파3)에서 갈렸다. 8번 아이언을 잡은 지은희는 홀 옆 2m에 볼을 떨어뜨려 버디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페테르센은 10m 거리에서 첫 퍼트를 홀에 떨어뜨리지 못하다가 3퍼트 보기를 저지르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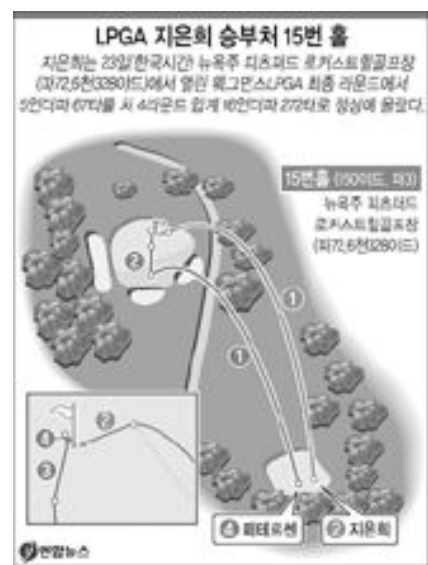
1타차로 경기를 뒤집은 지은희는 17번홀(파5)에서 페테르센이 4m 버디를 잡아넣자 3m 버디로 응수했고 18번홀(파4)에서는 오른쪽 러프에서 그린에 볼을 올린 뒤 파를 지켜내 보기를 홀아웃한 페테르센에 2타차 완승을 거뒀다.

3타를 줄인 한희원(30·필라코리아)과 4언더파 68타를 친 장정(28·기업은행)이 나란히 공동 3위(12언더파 276타)에 올랐다. 지은희와 함께 공동 2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박인비(21)는 2오버파 74타로 부진, 공동 6위(9언더파 279타)로 밀려났다.

재기를 노리는 위성미(18·미국 이름 미셸

차지했다. 싱크는 23일(한국시간) 미국 코네티컷주 크롬웰 리버하이랜드TPC(파70·6천820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4라운드 경기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묶어 3언더파 67타를 쳐 최종합계 18언더파 262타로 정상에 올랐다.

공통 2위인 헨터 메이헌, 토미 아머 3세(이상 미국)를 1타차로 따돌렸다. 2라운드부터 단독 선두에 나선 끝에 우승 컵을 품에 안은 싱크는 2004년 8월에 월드골프챔피언십(WGC) NEC인비테이셔널 우승 이후 거의 4년만에 승수를 보냈다. 나상욱(24·코브라골프)은 4언더파 276타로 공동 5위, 위창수(36·테일러메이드)는 이븐파 280타로 공동 66위로 대회를 마쳤다.



지은희가 23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피츠퍼드 로커스트 힐 필드골프장에서 열린 웨그먼스 LPGA 최종 라운드에서 감격의 첫 우승을 따낸 후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 미국)를 1타차로 따돌렸다.

2라운드부터 단독 선두에 나선 끝에 우승 컵을 품에 안은 싱크는 2004년 8월에 월드골프챔피언십(WGC) NEC인비테이셔널 우승 이후 거의 4년만에 승수를 보냈다. 나상욱(24·코브라골프)은 4언더파 276타로 공동 5위, 위창수(36·테일러메이드)는 이븐파 280타로 공동 66위로 대회를 마쳤다.



360도 돌려차기?

23일 서울 강남구 국가원에서 열린 '제2회 한국실업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 남자 3인 지명전에서 국군체육부대 이승수(오른쪽)가 영천시청 김시환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호 28일 선발 등판

브라질 마사 시즌 3승 질주 F1 그랑프리 프랑스 대회

박찬호(35·LA 다저스·시진)가 시즌 세 번째 선발 출격 기회를 잡았다.

미국프로야구 LA 다저스는 23일(이하 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박찬호가 28일 오전 11시40분 캘리포니아주 LA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LA 에인절스 오브 애너하임전에 선발 등판한다고 예고했다.

선발 요원 브래드 페니와 일본인 투수 구로다 히로키가 어깨 부상을 당하면서 22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전에 이어 연속 선발 등판 기회가 찾아온 셈이다.

박찬호는 22일 경기에서 최고 구속 154km짜리 강속구를 앞세워 지난해 사이영상 투수 C.C.사바티아가 선발로 나온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삼진을 9개나 잡아내는 기대 이상의 피칭을 했다.

5이닝 동안 3피안타, 1실점의 호투를 펼치며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승수는 쌓지 못했지만 평균자책점은 2.83로 내려갔다. 시즌 성적은 2승2패1세이브.

박찬호는 지난달 18일에도 에인절스전에 선발 등판했다가 4이닝 2실점(1자책점) 했다.

펠리페 마사(브라질)가 국제자동차경주대회 포뮬러 원(F1) 그랑프리 프랑스 대회에서 우승하며 시즌 3승째를 거뒀다.

마사는 23일(한국시간) 프랑스 마니크루에서 열린 시즌 8라운드에서 1시33분 50초245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4.411km 서킷을 70바퀴 도는 이날 레이싱에서 2위 키미 라이코넨(핀란드)에 17.9초 앞선 마사는 시즌 종합 점수에서도 48점으로 이날 4점을 보태는 데 그친 로베르토 쿠비차(폴란드)를 2차 차로 추월했다. 브라질 선수가 F1 종합 점수에서 1위에 나선 것은 1993년 아일톤 세나 이후 15년만에 마사가 처음이다.

팀 순위에서도 이날 2위를 휩쓴 페라리가 91점으로 2위 BMW(74점)와 격차를 17점으로 벌렸다. 시즌 9라운드는 7월6일 영국 실버스톤에서 열린다.

장타선수권 1~4위가 모두 쌍둥이

지난해 407야드를 날리는 타력의 고교생 장타자 박성호(18)를 탄생시켰던 한국장타자선수권대회가 이번에는 두 쌍의 쌍둥이 형제가 1~4위를 휩쓰는 진기한 장면을 연출했다.

23일 강원도 문막 오크밸리골프장에서 열린 워크골프 주최 2008 한국장타자선수권대회 2차 예선에서 한국프로골프협회 주최(세미프로)인 공평안(26)씨가 374야드를 날려 우승했다.

함께 출전한 공씨의 쌍둥이 동생 정

안씨는 준결승에서 탈락해 4강에 머물렀다. 또 330야드를 때려 2위에 오른 서명구(27)씨는 쌍둥이 동생 봉구 씨(328야드)를 가까스로 3위로 밀어냈다. 우승자 공평안 씨와 2위 서명구 씨는 8월엔 열리는 결선에서 출전할 자격을 얻었지만 쌍둥이 동생들인 정안 씨와 봉구 씨는 상품만 받았다.

한편 40세 이상 시니어부문에서는 이종준(47)씨가 335야드를 뽑아내 우승했다.

스포츠동행 24일(화) ▲제 9회 전국대학 축구대회 백호그룹 결승전(14:30·KBS N SPORTS) ▲2008 프로야구(KIA: 한화)(18:00·KBS N SPORTS), (우리: 두산)(18:30·MBC ESPN), (SK: 롯데)(18:10·SBS 스포츠), (LG: 삼성)(18:20·XPORTS)

스튜어트 싱크 18언더 우승

나상욱 52위·위창수 66위

PGA 트레블러스 챔피언십

스튜어트 싱크(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트레블러스 챔피언십 우승을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들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점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론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건물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가공인중개사 상가건물 매도 -광주로 대로지 231㎡(70평) 5층 20억 -충장로 대로지 230㎡(70평) 5층 18억 -충장로 대로지 206㎡(63평) 4층 18억 -충장로 대로지 166㎡(50평) 4층 23억 -충장로 대로지 132㎡(40평) 3층 10억 -광산동 구서동 대로지 537㎡(163평) 4층 15억 -동문동 한대원 코너 대로지 284㎡(85평) 4억 -광명동 3번대로 건물지 1,190㎡(360) 8억 -앞문동 대원지 390㎡(118평) 6층 6억5천만 원

대지공인중개사 (공정 신뢰 책임) 현 010-8572-8985 구합니다. 시내주요구합 임대주택이 많은 상가건물구합. 권리지역 임야 구합. 매각중개대상물 [담양 무정 임야(관리지역)] 대 3.3㎡당 25,000원 대원지향 전입가 [함평 나산 임야(관리지역)] 3441㎡ 대 3.3㎡당 13,000원 [신안동 상임지] 대지339㎡ 조림식 건물있는 대 3.3㎡당 190만원 [중흥동 35㎡대토번] 대지1920㎡ 한정식식당건 건물있음 마방역고급시설, 샤워,물류창고, 전선 판매장, 카센터(유류)등

금보부동산컨설팅 토지매매 -전주 동문동 상하리길 194번지 대지 4,000㎡ -전주 동문동 상하리길 194번지 대지 4,000㎡ -전주 동문동 상하리길 194번지 대지 4,000㎡ -전주 동문동 상하리길 194번지 대지 4,000㎡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정호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선컨설팅평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합 Tel:062)973-9174, 016-757-8800 토지구합 수원지구 상임용지 건축사법원

한일지도판매(주) 2008최신 합본(광주·나주·함평·영광·함평) 지번도 책 판매중 안녕하십니까? 한일지도(주) 20주년을 맞이하여 합본책을 제작하여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작한 합본책은? ① 광주 광역시 전지역 재개발·도시 계획·용도지역·하남공단 경제특구 최신지적, 신원APT 수록 ② 나주 나주시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그린벨트 1·2차 해제수록, 나주상설동 스포츠타운 수록, 송일택지개발지구 7개지구수록